

**Fitch, 이집트 신용등급 하향조정**

□ 신용평가기관인 Fitch Ratings\*는 8월 21자로 정부의 환율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이집트의 국가신용등급(장기외화등급)을 종전의 **BBB-**에서 **BB+**로 한단계 하향 조정

- 단기등급도 F3에서 B로 한단계 낮추었으나, 향후 전망은 안정적 (Stable)으로 평가

\* 미국의 Moody's, S&P와 함께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의 하나로 1997년 미국의 IBCA와 합병하여 Fitch-IBCA로 불리다가 Fitch Ratings으로 변경

□ 지난 5월에 미국의 **S&P**도 경제편더멘털 약화와 느린 개혁추진을 이유로 이집트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**BBB-**에서 **BB+**로 한단계 낮춘 바 있음

- 신흥시장 전문 신용평가기관인 **Capital Intelligence**도 금년 7월에 이집트의 신용등급전망을 **부정적(Negative)**으로 조정

※ 주요기관의 이집트에 대한 국가신용등급

구 분	Moody's	S&P	Euromoney	ICRG	OECD(2001.7)
등 급	Ba1	BB+	63/185('01.9) 63/185('02.3)	74/140('01.6) 84/140('02.7)	4등급 (총7등급)

\* ICRG : Int'l Country Risk Guide

□ Fitch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이집트경제는 대외신용도가 저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, 1990년대 초 도입된 경제개혁 프로그램의 추진도 지지부진한 상황임

-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환율안정이 핵심적인 요소이나, 수 차례에 걸친 정부의 환율인상은 환율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킴

- 이집트 정부는 정치 및 사회안정을 보다 중요시하고 있어 적극적인 개혁추진이 어려운 상황임

□ Fitch Ratings는 이집트 주요 은행들에 대한 외화 장단기 신용등급도 하향조정

은행명	장기등급	단기등급
National Bank of Egypt	BBB- → BB+	F3→B
National Bank of Egypt Int'l	BBB- → BB+	F3→B
Commercial Int'l Bank	BBB- → BB+	F3→B
Egyptian American Bank	BBB- → BB+	-
Export Development Bank of Egypt	BB → BB-	B

- 최근 이집트 정부의 관세인하와 통관절차 간소화 등 통상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과 재정적자 규모 등 통계자료의 공개를 통한 정책 투명성 제고노력은 긍정적인 요소로 보임
- 지난해 9·11 테러 사태로 급감하였던 관광객수가 최근 회복조짐을 보이고는 있으나, 경상수지는 적자 지속

전문연구원 황수영(☎3779-6655)  
E-Mail : sooyhwang@yahoo.co.kr